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에 관한 소고

조 현 수 (Joe, Hyeon-soo)*

(E-mail : hynjoe@kookmin.ac.kr)

논문접수일 : 2012년 12월 24일
논문심사일 : 2013년 1월 23일
게재확정일 : 2013년 2월 15일

* 학위취득대학: Marburg대학
현재: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에 관한 소고

<국문요약>

베른슈타인은 영국의 페이비언주의와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개혁지향적 정치노선을 통해 사회주의로의 길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정치노선은 그 당시의 독일사회민주당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의 적응수단들을 논의하면서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가능성과 사회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부정하기에 이른다. 이에 반해 로자 룩셈부르크는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이 지니는 한계를 논의하면서 개혁과 혁명의 상호변증법적 지양성이라는 관점에서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주장한다.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은 그 내용에 있어 사회주의 국가건설에 있어 나타나는 방법론적 차이로 규정될 수 있겠다. 이 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가 논의하고 있는 ‘개혁’, ‘혁명’, ‘정치권력의 장악’ 그리고 대중파업론을 중심으로 그녀의 정치이론적 함의들에 대해 논의하려 한다.

[주제어] 혁명, 개혁, 경제적 민주주의, 정치적 민주주의, 정치권력, 대중파업, 자발성

I. 서론

역사발전을 해석하는 관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겠다. 그 하나는 개혁 혹은 점진적 진화이며, 또 다른 하나는 기존의 정치구조, 경제구조, 사회문화구조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이로 인한 새로운 구조의 형성을 의미하는 혁명일 것이다. 인류역사의 발전과정을 천착해보면 각각의 사회는 이 두 가지 발전노선 중에서 하나를, 또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과정을 겪어왔다고 하겠다. 로

자 룩셈부르크¹⁾는 『개혁이나, 혁명이나?』라는 글을 1898년 9월 21일에서 28일자의 <라이프찌히 인민신문> (Leipziger Volkszeitung)에 1부를, 1899년 4월 4일에서 8일자에 2부를 기고하였다. 잘 알려져 있듯이 이 글은 자신을 거리낌없이 수정주의자로 공언한 베른슈타인의 글, 「사회주의의 문제들」(Probleme des Sozialismus)과 『사회주의의 전제조건과 사회민주당의 과제』(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라는 글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정면으로 반박하고자 작성되었다.²⁾ 로자 룩셈부르크의 자본주의비판과 사회주의를 향한 투쟁에서 일관되게 관통하고 있는 입장이 개량주의 혹은 수정주의에 대한 비판임을 감안해 볼 때(조호래 2001, 49), 이 글은 아마도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적 입장을 가장 강력하고 선명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고 하겠다.

『사회주의의 전제조건과 사회민주당의 과제』에서 베른슈타인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국가건설이라는 방법론을 부정하면서 사회주의로의 길이 사회개혁을 통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점진적인 개혁을 진전시켜 나가는 그러한 운동노선을 지지하였다. 그에게 있어 혁명은 전제정치 하에서는 필요한 수단이지만 민주정치에서는 굳이 행할 필요가 없는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부연하면, 그는 노동운동이 지향해야 할 근본적 성격과 관련하여 사회민주당을 사회혁명을 위한 당이 아니라 “민주사회주의 개혁정당”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의미맥락에서 그는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 상호관계를 논의하기보다는 개혁과 혁명이라는 노선 중에 일방적으로 개혁을 선택하는 입장을 취했다고 하겠다. 이러한 선택을 취함에 있어 그는 그 당시의 자본주의의 현실적 흐름과 이에 대한 판단 그리고 생산

1) 로자 룩셈부르크의 전기에 대해서는 Gallo 1993, Laschitzka 2000, Schüttrumpf 2006, Gietinger 2009, Dath 2010 참조.

2) 사회주의체제를 달성함에 있어 개혁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우선적으로는 이론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서유럽에서 가까운 장래에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적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로자 룩셈부르크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Frölich 저·최민영·정민 옮김 2000, 88).

과 분배의 문제를 이원적 관점에서 이해하는 영국 페이비어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이다.

사실상 베른슈타인은 영국을 노동운동과 관련하여 모범적 국가로 여겼다(Kolakowski 저·변상출 옮김 2007, 132).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동조하면서 콘라드 슈미트(Konrad Schmidt)는 노동조합과 사회개혁의 발전으로 인해 자본소유자는 점점 더 단순 경영자의 역할로 전환하게 되며, 결국에는 자본가가 사라짐과 동시에 경영권도 자본소유자의 손을 떠난다고 주장하였다. 이 말의 핵심적 요지는 무엇인가? 간단히 말해 사회개혁을 통해 사회주의가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자본주의 모순이 심화되지 않고 점진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조건들에 체제를 적응수단들을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한다면, 사회주의의 객관적 필연성은 사라진다는 점이다.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개혁과 혁명의 상호연관성이라는 맥락에서 그리고 사회 개혁이 지니는 제한적 의미를 언급하면서 개혁과 혁명의 양자택일이 아니라 두 노선의 변증법적 관계를 역설한다.

이 글의 목적은 룩셈부르크가 사용한 개념들이 지니는 실천적 의미에 대한 분석 및 접목을 통해 그녀의 정치이론에 담겨 있는 함의들을 논의하고자 함에 있다. 그녀에게 개혁은 무용지물이 아니라 최종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단이며, 그런 맥락에서 혁명과 개혁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의존성 내지 변증법적 지양성이라는 관계를 맺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해 이 글의 연구목적에 모색하려 한다. 2장에서는 룩셈부르크가 논의하고 있는 개혁과 혁명의 상호연관성, 혹은 개혁이 지니는 한계설정과 혁명 속에 내포되어 있는 정치적 의미의 규정성이라는 차원에서 베른슈타인이 제시한 자본주의 적응론에 대한 비판,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로의 길을 위한 전제조건인가에 대한 논의 그리고 의회주의의 한계 및 정치권력의 장악이 지니는 함의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베른슈타인은 노동조합이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주요한 경제적 수단이며, 의회는 사회의 의지가 구현된 결사체로 초계급적 제도로서

의회제 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3장에서는 대중과업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 즉 대중과업은 사회주의 투쟁을 위한 하나의 강력한 무기인가 아니면, 하나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는가의 문제, 대중의 자발성 문제, 그리고 노동조합과 정당의 관계규정의 문제를 논의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 혹은 그녀의 주요 개념들을 ‘사회주의냐 아니면 자본주의냐’라는 양자택일의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적 결과론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밝혀 두려 한다.

II. ‘개혁’과 ‘혁명’³⁾

1.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 상호지양성

인류가 “사회주의냐 아니면 야만이나”의 선택의 길에 가로 놓여 있다고 천명하는 로자 룩셈부르크를 주목하면서 『개혁이나, 혁명이냐?』라는 제목을 접하다보면 무엇보다도 그녀가 양자택일의 관점에서 베른슈타인의 진화론적 사회주의 정치노선에 전적으로 반기를 들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⁴⁾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다. 베른슈타인의 고민은 무엇보다도 이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실천의 관점에서 사회주의운동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리하여 사회민주당은 먼 미래의 과제를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현재적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야 할 것인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⁵⁾

3) 로자 룩셈부르크는 근본적으로 맑스와 엥겔스의 개혁과 혁명 개념을 계승하고 있다. 이 개념들에 대한 맑스와 엥겔스의 생각은 크라머(Kramer)의 『Reform and Revolution be: Marx and Engels』 참조.

4) 로자 룩셈부르크의 수정주의논쟁에서의 기여에 대해서는 네틀(Nettl)의 『Rosa Luxemburg』 6장 참조.

나의 의식과 관심은 현재 그리고 당장의 가까운 미래의 과제에만 쏠려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행동을 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되는 한에서만 현재를 넘어서는 전망이 나에게 의미를 갖는 것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57).

베른슈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먼 미래의 일은 우선적으로 중요하지 않으며, “독일사회민주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문제는 독일 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데 있다”는 것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57).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 노동운동의 선결과제는 노동자들의 현실적인 당면과제를 해결함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운동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최종목표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단언하였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57). 달리 표현하면, 리카르도적 사회주의자 혹은 페이비언 주의자로서 베른슈타인은 사회민주당을 혁명정당이 아니라 개혁정당으로 규정짓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최종목표의 부정이다. 이 최종목표의 부정을 어떠한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는가? 이로 인해 이른바 ‘수정주의 논쟁’이 벌어진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사회개혁을 통한 실천이 의존하고 있는 이론체계, 즉 “베른슈타인의 방법”에 대해 근본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베른슈타인 작업수행의 핵심은 사민주의의 실천적 과제에 관한 그의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객관적 발전과정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GW 1/1, 373). 따라서 룩셈부르크는 개혁과 혁명의 상호지양성 혹은 상호관계를 정립하면서 베른슈타

5) E. Bernstein의 『사회주의의 전제조건과 사회민주당의 과제』(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는 Henry Tudor가 편집하고 번역한 The Preconditions of Socialism(1993)와 한글 번역판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1999)를 참조하였다. 또한 이 글에서 인용표기는 한글 번역판에 의한 것이다.

인이 파악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객관적 발전과정에 대한 비판을 통해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가 사회개혁에 반대할 수 있는가? 혹은 사회민주주의의 최종목표인 사회혁명, 즉 기존질서의 변혁이 사회개혁에 반대할 수 있는가? 물론 아니다. 사회민주주의에 관한 한, 사회개혁을 위한, 현존 사회질서 내에서 노동자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위한 일상적인 실천적 투쟁은 오히려 노동자들을 계급투쟁에 참여하게 하고 최종목표, 즉 정치권력의 장악과 임금제도의 철폐에 이르도록 하는 유일한 방법을 형성한다. 사회민주주의에 있어 사회개혁과 사회혁명 사이에는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한다. 사회민주주의에 있어 사회개혁은 수단이며, 사회혁명은 목표이다(*GW* 1/1, 369).⁶⁾

“최종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나에게서는 아무 것도 아니며 운동이야말로 나의 전부”라고 천명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사회주의적 최종목표가 부르주아민주주의와 부르주아급진주의로부터 사회민주주의운동을 구별해내는 단 하나의 결정적 계기”인 점, 그리고 “새로운 방향은 앞서 존재하는 형식을 취하고 기존의 언어”로 말하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낡은 껍질을 뚫고 새싹이 나오고 그래서 새로운 방향은 자신의 형식과 언어를 발견하게 된다”(GW 1/1, 370)는 관점에서 사회개혁과 사회혁명이 수단과 목표의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수단이 목표에 기여하는 한에서 그 수단은 의미를 지니게 되며, 동시에 수단과 목적은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변증법적인 상호연관성을 가진다. 부연하면, “법적인 개혁과 혁명은 ...계급사회의 발전에 있어 각기 다른 계기이며 서로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요인”이며, “그때 그때의 법적인 제도는 혁명의

6) Rosa Luxemburg, *Gesammelte Werke*. Berlin: Dietz Verlag, 1974, Bd. 1/1. 이하에서는 *GW*로 약칭.

산물일 따름이다”(GW 1/1, 428-9). 나아가 “혁명은 계급역사에 있어 정치적 창조행위인데 비해 입법은 그 사회의 정치적인 지속적 성장이다”(GW 1/1, 428). 룩셈부르크는 사회개혁과 혁명을 역사발전에 있어서 일정한 상호연관성을 지니기는 하지만 각기 다른 계기로서 파악하면서 사회개혁과 혁명에 관한 문제, 즉 최종목표와 개혁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볼 때 소부르주아적 노동운동이나 아니면 노동계급적 노동운동이냐의 문제”로 결론짓고 있다(GW 1/1, 371).

그녀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개혁지향적 노동조합의 활동을 통한 일상투쟁의 결과로 이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이러한 점에서 영국의 노동조합은 사회주의를 일관성있게 추구하려는 확고한 목적의식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또한 그녀는 의회를 통한 법적 개혁 역시 분명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역설한다.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의회주의적 지향성에 대해 이렇게 비판한다.

베른슈타인은 의회라는 닭장을 세계사에서 가장 강력한 혁명, 즉 사회를 자본주의형태로부터 사회주의형태로 변형시키는 일을 수행할 적합한 도구로 간주하였다(*GW* 1/1, 433).

베른슈타인이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언급할 때, 그는 기존의 의회를 초계급적 제도로 이해하고 의회제민주주의를 사회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여겼다. 그리하여 그는 사회진화론적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개인의 자유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는 법률이 민주주의 사회의 다수에 의해 만들어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거의 확실한 보장이 주어지고 있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0)는 진단 하에 현존하는 제도를 통해 사회가 진화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주의로의 길을 완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룩셈부르크는 의회제도를 “부르주아 계급 국가의 특수한 형태 중의 하나”로 이해하였다(*GW* 1/1, 399). 이러한 입

장에서 그녀는 민주주의가 계급지배의 철폐라는 베른슈타인의 견해에 동의하기는 하지만⁷⁾ 현존하는 제도로써 민주주의를 이룩하기는 어렵다고 반박한다. 물론 이 반박의 핵심에는 기존의 제도들이 사회의 일반의지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이지, 즉 특정한 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가로 놓여 있다.

이러한 전후맥락 속에서 사실상 베른슈타인의 개혁지향적 사회주의와 룩셈부르크의 혁명지향적 사회주의로의 길에 내재해 있는 근본적인 차이는 자본주의의 객관적 발전과정과 이를 토대로 하는 이론과 실천의 문제를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하는가에 있다고 하겠다. 나아가 베른슈타인이 기존의 사회질서 안에서 행해지는 사회개혁에 대해 일반적으로 긍정적이며, 낙관적인 견해를 가졌던 반면⁸⁾, 룩셈부르크는 사회개혁이 지니는 한계성에 초점을 두어 부정적인 생각을 품고 있었다고 하겠다. 달리 표현하면, 그녀에 관한 한, 혁명과 개혁은 단지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 본성에서부터 다른 것이다. 개혁은 점진적 혁명의 총화가 아니며, 동시에 혁명도 확대된 개혁이 아니다.

2.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 적응론에 대한 비판

베른슈타인이 사회혁명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아가 혁명을 통한 길을 포기하게 된 근본적 이유는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듯이 그 당시에 진행되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객관적 발전과정에 의존한 바가 크다고 하겠다(*GW* 1/1, 373). 이 객관적 발전과

7)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민주주의는 수단이자 동시에 목적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사회투쟁의 수단이자 사회주의의 실현형태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1).

8) “헌법에 입각한 입법은 대개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방법은 대개 타협적인 것이며, 기득권의 철폐가 아니라 그것의 배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 입법은 지속적으로 존속 가능한 경제제도를 만들고자 할 경우, 즉 달리 말해 적극적인 사회정책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342).

정에 의존하여 베른슈타인은 자본주의체제의 붕괴론 내지 붕괴가능성 그 자체를 폐기처분하고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길을 주장하게 된다. 이러한 개혁주의적 노선을 토대로 베른슈타인은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획득, 자본가계급에 대한 몰수 등은 그 자체 최종목적은 아니며”, “현재 독일사민당이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전술적인 문제는 독일노동자들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확대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57). 베른슈타인이 강도높게 피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적응수단 혹은 자본주의의 적응론은 곧 자본주의사회의 붕괴론에 대한 비판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진화론을 수용하게 되는 이론적 배경이었다.

이 절에서는 베른슈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적응수단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비판을 논의하려 한다. 그녀가 요약하고 있는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의 적응능력⁹⁾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자본주의의 적응능력은 신용제도의 발달, 기업조직들의 발달 그리고 더욱 광범위해진 통신 및 정보서비스의 발달 덕택으로 전반적인 위기가 사라지고, 둘째, 자본주의의 적응능력은 생산부문의 지속적인 다변화와 노동자계급의 많은 수가 중간계급 수준으로 상승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중간계급의 고강함 속에서, 마지막으로 노동조합투쟁의 결과 노동자계급의 경제적, 정치적 지위가 향상됨으로써 나타난다(*GW* 1/1, 374).

여기서 말하는 근대사회의 기업조직의 발달이란 자본의 배타성과 독점적 권력을 담지하고 있는 카르텔과 트러스트를 의미한다. 이 절에서는 적응능력 중에 신용제도와 기업조직들에 관한 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이 적응수단들에 관해 검토하려 한

9)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의 적응수단에 대한 총괄적 비판은 *GW* 1/1, 2장 참조.

다. 이제 베른슈타인의 입장¹⁰⁾과 이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비판을 논의해 보기로 하자.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신용제도, 자본주의적 기업조직들, 그리고 통신수단의 발달로 인해 자본주의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자신을 적응시키는 능력을 증대시켜왔다고 한다. 신용제도가 가지는 중요한 두 가지 기능은 생산확대와 교환의 촉진을 들 수 있다.

이 제도는 주식소유를 통해 다수의 개별자본을 하나의 대자본으로 결합시키며, 각각의 자본가로 하여금 기업신용의 형태로 다른 자본가들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게 한다. 동시에 상업신용의 형태로 상품교환과 자본의 생산으로의 복귀를 가속화함으로써 생산과정의 전체주기를 촉진시킨다. 간단히 말해 베른슈타인이 볼 때,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며, 이 제도로 인해 자본주의의 필연적 붕괴 혹은 붕괴가능성 그 자체는 사라지게 된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 발전과정과 관련하여 베른슈타인이 옳다고 한다면, 사회의 사회주의로의 이행은 하나의 유토피아이다. 사회주의가 결코 유토피아가 아니라면, 적응수단에 관한 이론은 논거가 분명하지 않음에 틀림없다”라는 문제를 제기한다(*GW* 1/1, 377). 그리고 그녀는 신용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신용제도는 생산의 확장력을 불균형하게 증대시키고 지속적으로 시장의 한계를 초과하도록 몰고 가는 내적인 추동력을 형성한다. 그러나 신용제도는 두 가지 점에서 충돌한다. 신용제도가 일단 생산과정의 요소로서 과잉생산을 불러일으키고 나면, 상품교환 중개자로서의 신용제도는 위기 동안에 그 자신이 만들어 낸 생산력을 파괴시켜 버린다. 그리하여 정체의 최초의 징후가 나타

10)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3장에서 ‘근대 사회의 경제적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자본주의 발전경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따라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서는 강신준 역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3장 참조.

날 경우 신용제도는 감소한다 ...(*GW* 1/1, 378).

룩셈부르크가 이 문장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녀에게 있어 자본주의경제가 제대로 작동할 경우에, 신용제도는 별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문제는 자본지배적 경제에서 생산과 소비라는 순환구조가 역기능적으로 작동할 때이다. 그녀가 지적하였듯이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적 관계에 잔존하는 경직성을 제거”하고, “최대한의 가능한 유동성을 도입”한다(*GW* 1/1, 379), 하지만 신용제도는 “생산양식과 교황양식간의 적대관계”와 “생산양식과 전유양식간의 적대관계”를 더 첨예화시키고, 나아가 “다수의 중소자본가들을 박탈하여 소수의 자본가가 거대한 생산력을 장악”하게 됨으로써 “소유관계와 생산관계 사이의 적대관계를 심화시킨다”.

결국 신용제도는 “생산에 대한 국가개입을 필연적인 것으로 만들어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사적 소유사이의 적대관계를 증대시킨다”(*GW* 1/1, 379-380). 룩셈부르크의 입장은 베른슈타인의 입장과는 정반대로 신용제도는 자본주의의 적응수단이 결코 아닌 것이다. 다음으로 자본주의 적응수단으로서의 기업조직들, 즉 카르텔과 트러스트에 대해 알아보자.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카르텔과 트러스트와 같은 기업조직들은 생산규제를 통해 생산의 부정부성을 저지하고 위기를 제거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176). 이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카르텔이나 트러스트 같은 기업조직들은 산업의 부정부성을 억제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기업조직들의 최종적인 경제목표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즉 이 기업조직들은 “일정한 생산부문에서 경쟁을 억제함으로써 해당 산업부문으로 귀속되는 몫을 증대시키는 방식을 통해” “다른 산업부문의 희생을 통해” “시장에서 실현되는 이윤량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이윤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GW* 1/1, 381). 더욱이 이 기업조직들은 “자본주의 국가들 사이에 최고조의 적대감을 일으키는 전면적인 관세전쟁을 수반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국제적

성격과 자본주의 국가의 일국적 성격간의 모순을 심화시킨다”(GW 1/1, 382). 따라서 룩셈부르크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러한 자본주의적 기업조직들은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는 위기의 극복수단 혹은 적응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을 심화시킬 뿐이다(GW 1/1, 383).

그렇다면, 자본주의 적응력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논쟁에서 핵심적인 요지는 도대체 무엇인가? 베른슈타인이 자본주의의 적응력의 문제를 놓고 논의하고자 하는 점은 다른 아닌 자본주의의 필연적인 경제적 붕괴론에 대한 반론으로 볼 수 있겠다. 그에 따르면,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내적 혹은 외적 동력으로 인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런 까닭에 사회민주당은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적시하고 정치실천적인 문제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베른슈타인의 이러한 입장은 사실상 다윈의 사회진화론적 관점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정치전술적인 문제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그는 노동조합을 통한 노동자계급의 상황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고 혁명적 정치노선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반해 룩셈부르크는 무엇보다도 베른슈타인의 자본주의 경제의 적응능력에 대한 논의를 반박하면서 그가 최종목표, 즉 사회주의건설을 포기하고 있다고 간주하였다.¹¹⁾ 그녀가 볼 때, 베른슈타인이 제시하고 있는 모든 적응수단들은 자본주의라는 울타리 내에서 일어나는 한계를 지니며, 동시에 그의 논의가 정치적 순응주의에 입각한 개혁정치를 논의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3.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를 가능하게 하는가?

11)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를 놓고 볼 때, 베른슈타인 자신은 사회주의건설을 포기한다고 천명한 적은 없다. 강신준 역의 『사회주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pp. 310-351 참조.

로자 룩셈부르크는 『개혁이나, 혁명이나?』의 2부 2장에서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관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을 반박하면서 이 문제에 관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GW 1/1, 417-427).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의 쟁취,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기구들의 완성이 사회주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전제조건”(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73)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전제의 실현 이전에 담겨 있는 노동자계급에 대한 그의 생각은 상당히 부정적이다.

즉 “...사회주의에 대한 지지표는 확정된 의지의 표현이기보다는 막연한 희망의 표현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해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은 노동자 계급 가운데 매우 적은 비율일 뿐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01). 그는 “타협의 대학”(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3-4)이라는 민주주의의 광장 속에서 민주주의를 “원칙적으로는 계급지배의 철폐”로 규정지으면서 사회민주당의 실천적 활동을 “급작스런 폭발적 사태 없이 근대 사회제도를 보다 발전된 사회제도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상황들과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설정하였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6). 이에 덧붙여 베른슈타인은 말하기를

사민당은 부르주아 사회 대신에 프롤레타리아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본주의적 사회제도 대신에 사회주의적 사회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8).

사민당이 나아가야 할 궁극적 목적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사민당 내의 모든 집단들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 역시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관점 차이에 있다. 베른슈타인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그 자신이 “경제적 민주주의”라고 칭한 노동조합과 협동

조합(Genossenschaft)을 통해 실현된다. 노동조합은 산업이윤을 억제할 것이고 협동조합은 상업이윤을 사라지게 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187-241). 룩셈부르크는 먼저 베른슈타인의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주의 실현에 대해 반박한다. 반박의 요지는 이렇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교환이 생산을 지배한다. 다시 말해 생산은 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상당히 의존한다. 자본들 간의 경쟁의 결과로 인해 생산과정의 완전한 지배는 각 기업의 생존조건이 된다. 그리하여 생산과정을 지배하는 자본은 노동강도와 노동일의 연장 및 축소를 통해 자신의 지배력을 표현한다.

경쟁에 맞서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 생산분야에서 협동조합을 조직하는 노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극도의 독재력을 자신 스스로에게 행사해야 하는 필연성과 마주한다. 간단히 말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에게 자본주의 기업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협동조합은 두 가지 극단적 상황을 맞이한다. 그 첫째는 자본주의 기업으로 전환하게 된다는 점, 둘째로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우선시할 경우, 생산협동조합은 해체된다는 점이다(GW 1/1, 417-8).

이러한 입장에서 룩셈부르크는 생산협동조합이 살아남을 가능성은 단지 생산협동조합이 “인위적으로 자유경쟁법칙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때, 그리고 “소비자들의 일정한 주기에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확신할 때”뿐이라고 주장한다(GW 1/1, 418). 물론 베른슈타인은 생산협동조합은 소비협동조합의 지원 속에서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 점 역시 비판하고 있다.

자본주의 안에서 생산협동조합이 소비협동조합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여 생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도 생산협동조합의 범위는 가장 유리한 경우라 할지라도 소규모 지역시장, 혹은 특히 식품생산과 같이 직접적 필요를 만족시키는 제조업 수준으로 제한된다. ...생산협동조합이 광범위하게 자리잡기 위해서

는 ... 세계시장의 억제, 즉 오늘날의 세계경제를 소규모 지역권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교환으로 분할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 이는 현재의 고도로 발달하고 널리 퍼진 자본주의가 중세시대의 상인경제로 후퇴하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GW 1/1, 418).

룩셈부르크의 입장에 따르면, 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단이라고 여겨진 협동조합을 통한 사회개혁론은 매우 제한적인 의미에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주의로의 길을 향한 공격적 수단은 결코 될 수 없다. 즉“자본주의 경제의 주요 토대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대신에 상업자본, 특히 중소기업의 상업자본에 반대하는 투쟁이 되어 버려 자본주의라는 거목의 밑동이 아니라 그 작은 가지만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GW 1/1, 419).

룩셈부르크의 사회개혁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여기서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점은 이 개혁이 자본의 이해관계 내에서만 제한적 의미를 지니며, 이 범위를 넘어설 경우, 사회개혁은 자본의 이해관계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생각의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룩셈부르크의 자본주의사회의 국가에 대한 입장이 그 저변에 깔려 있다. 즉 자본주의사회의 국가는 “지배적인 자본가계급의 조직”이며, 국가가 보편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경우, 이러한 이해관계는 “지배계급의 이해관계와 일치하는” 한에서 이다(GW 1/1, 395).

베른슈타인에 있어 또 하나의 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단이 노동조합을 통한 사회개혁에 관해 논의해 보자. 베른슈타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사회정책적 위상과 관련하여 본다면 노동조합과 직인조합은 산업부문의 민주주의적 요소들이다. 이것들은 자본주의의 절대주의를 타파하고 노동자들이 산업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경향을 갖는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46).

그리하여 인민대중을 사회주의 운동으로 이끄는 직접적인 원동력이 불공정성에 있다고 파악한 베른슈타인은 노동조합적 투쟁을 통해

“공정한, 더 공정한 그리고 더욱 더 공정한”분배방식으로서의 사회주의라는 결론을 내렸고, 동시에 최고의 공정한 배분은 인간의 정의에 대한 이해와 정의에 대한 이상이라는 인간의지가 작용한 결과 획득되는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그는 경험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의 객관적 발전을 설명하는 태도와는 전혀 다르게 최고의 공정한 배분을 ‘정의에 대한이상’과 연결지우면서 관념론에 빠져 들고 있다. 베른슈타인의 말대로 노동조합이 과연 “자본주의의 절대주의를 타파하고” 나아가 “노동자들이 산업의 관리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 게끔 하였는가? 록셈부르크의 반박은 바로 이 점에 있다.

그녀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생산범위나 기술적 과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없다. 또한 노동조합투쟁은 이윤율에 대한 임금율의 투쟁으로 규정지을 수 있는 경제적 측면에서만 한정적으로 이루어진다. 자본주의사회의 임금법칙은 규정된 틀 내에서 이루어지며, 노동조합투쟁을 통해 폐기되지는 않는다. 노동조합은 노동력시장 상황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 그리고 노동자들의 조건을 개선시킨다는 점에서 자본주의경제의 억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을 표출하는 하나의 단체인 뿐이다(*GW* 1/1, 419-420). 이러한 맥락에서 록셈부르크는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이 자본주의 생산양식을 변화시킬 수 없으며, 베른슈타인은 사회주의운동을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투쟁에서 자본주의적 분배에 대한 투쟁으로 대신하였다는 결론을 내린다(*GW* 1/1, 420).

베른슈타인은 이러한 경제적 민주주의가 확산될 경우, 생산의 사회화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과연 그러한가? 이에 대한 록셈부르크의 대답은 경제적 민주주의를 통한 사회주의 실현은 간단히 말해 ‘시지프스의 노동’에 불과할 따름이라는 점이다. 이제 정치적 민주주의에 대한 베른슈타인과 록셈부르크의 생각에 대해 논의를 진전시키기로 한다. 베른슈타인식 사회주의로의 길에 있어 민주주의의 성장은 주요한 정치적 전제조건이다. 그리고 경제적 민주주의의 발전은 정치적 민주주의로의 사회적 확대를 위한 주요한 전제를 형성한다.

그에게 있어 민주주의는 사회발전의 필연적 단계이자 가장 근본적인 역사발전법칙이다. 또한 민주주의의 실현은 전적으로 정치생활에 기여한다. 달리 표현하면, 베른슈타인은 민주주의를 인간사회의 자연적 진화과정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주주의의 선거권은 그 유권자들을 잠재적으로 사회공동체의 참여자로 만들며 이런 잠재적 참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실상의 참여자로 발전한다는 사회진화론적 논의를 전개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48-254). 이러한 사회진화론적 논의과정은 결국 베른슈타인 자신이 강력하게 주장한 사회개혁을 통한 사회주의로의 길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보통선거권은 민주주의의 한 요소에 불과하지만 그것은 마치 자석이 흩어진 쇠조각들을 끌어 모으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민주주의의 다른 요소들을 자신에게로 끌어들이는 힘을 가지고 있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5).

결론적으로 말해 베른슈타인의 경제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민주주의는 현존하는 의회제도 내에서의 사회입법을 통한 개혁을 주장함과 동시에 록셈부르크의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노선을 포기하고 의회주의에 기반한 개혁 지향적 노선을 바탕으로 사회주의로의 길로 나아가는 정치이론적 입장을 주장하게 된다.

4. 의회주의의 한계와 정치권력의 장악

의회주의 노선에 입각한 사회입법을 통한 개혁과 점진적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진화론에 기초하여 사회주의로의 길을 택한 베른슈타인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그는 “자유주의에 대한 선전포고에서 약간 절도를 지키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고 하면서 자유주의에 대해 논의를 개진한다. 그에

따르면 자유주의 운동이 자본가들에게 이익을 주었고, 또한 자유주의가 자본주의의 근위병이거나 근위병으로 되어갔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자유주의와 사회민주당 간에는 분명히 적대적 관계가 존재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9).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베른슈타인의 논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는 사회주의를 “세계사적 운동”과 “정신적 내용”에서 “자유주의의 적법한 상속자”로 규정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9).

그런 다음 그는 자유주의를 “외부적으로 강제된 제도나 혹은 단지 전통에 의해서만 정당화되고 있는 그런 제도에 민중을 종속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60)으로 정의하면서 “사민당에서 시민적 자유의 보장은 어떤 경제적 요구의 달성보다도 항상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자유로운 인성의 형성과 보장은 모든 사회주의적 수단의 목적”이라고 주장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59).

이 인용문에서 나타나듯이 그는 시민적 자유의 보장과 경제적 요구를 이원화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지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있다. 베른슈타인의 진술처럼, 자유로운 인성의 형성과 보장은 사회주의의 주요한 목적임에 틀림없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에서 경제적 요구의 달성, 혹은 경제적 평등은 한 개인의 (정치적) 자율적 의지의 구현을 위한 대전제를 형성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경제적 평등은 시민적 자유의 보장을 위한 주요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경제적 권리에 대한 요구와 정치적 권리에 대한 요구는 따로 떨어져 있는 권리가 아니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주의에서 사회적 평등 좁게는 경제적 평등은 한 개인의 자유 실현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이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목표를 포기하고 의회주의를 통한 사회개혁을 주장하는 논거를 이루고 있는 까닭에 현 시점에서는 그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비판은 나중에 진행하기로 하고 우선은 자유

주의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인용해 보기로 하자. 그는 다음과 같이 자유주의 이념에 대해 진술한다.

실제로 자유주의 사상 가운데 사회주의의 이념적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 책임 없는 자유란 없다.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인간의 행동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실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도덕률의 토대로 삼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사회적 윤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노동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제적 책임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건강한 사회생활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적 책임성을 승인하는 것은 개인이 사회로부터 받은 이익에 대해서 사회에 되돌려 주는 개인의 반대급부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61).

그리하여 그는 “자유주의의 적법한 상속자” 혹은 “조직적 자유주의”로서 사회주의가 지니는 성격에 대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사회주의는 어떤 형태의 새로운 속박도 만들어내려 하지 않는다. 개인은 자유로와야 하는데 이 자유는 형이상학적 의미, 즉 무정부주의자들이 꿈꾸는바 사회에 대한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운동이나 직업선택에 대해서 가해지는 모든 경제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는 의미에서이다. 그런 자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조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회주의를 조직적 자유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데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조직이나 사회주의가 목표로 하는 조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 조직이 의견상 비슷해 보이는 봉건적 제도들과 구별되는 결정적인 점이 바로 그 자유주의라는 사실, 즉 그것의 민주주의적 규약과

개방적 성격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263).

이에 덧붙여 그는 이러한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적격자로서 “용감하고 조직적이며 총괄적인 정신”을 가져야 하며, 나아가 “높은 식별력”과 생각의 지평이 넓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공화주의자”(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351)이어야 한다는 진술로 자신의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를 끝맺고 있다.

베른슈타인이 민주주의의 쟁취, 그 방법론으로써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노선을 버리고 정치적, 경제적 민주주의 기구들의 완성이 곧 사회주의 실현을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배경에는 의회주의에 대한 신임과 노동자계급의 불신임¹²⁾이 깔려 있다고 하겠다. 그에게 있어 의회는 국가기구 안에서 초계급적 제도로서 전 사회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그리고 역사발전의 입법적 발전을 위한 광장으로서 감성이 지배하는 혁명과는 달리 입법에는 인간 지성이 작동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342). 그리하여 노동조합투쟁과 병행하여 의회주의적 실천의 결과 사회적으로 민주주의가 정착되고 나아가 사회주의적 특성이 자본주의경제에 점진적으로 사회화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발전의 결과 사회주의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러한 베른슈타인의 입장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다음과 같은 전제 하에서 사회주의로의 길에 대한 자신의 논의를 출발한다. 즉

국가는 부르주아계급의 정치적 승리로 인해 자본주의적으로 되었다. ... 국가는 지배계급의 조직이다. 국가가... 보편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이러한 이해관계와 사회발전은 지배계급의

12) “노동자계급이 아직 강력한 자신의 경제적 조직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 높은 수준의 정신적 자립성에 도달해 있지 못한 경우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란 클럽 연설가들과 문필가들의 독재를 의미한다”(Bernstein 저·강신준 옮김 1999, 343).

이해관계와 일치한다(GW 1/1, 395).

이 인용문에서 드러나듯이 룩셈부르크는 베른슈타인의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의 출발점으로 자본주의사회의 국가기구를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관철하는 집행 위원회(Marx/Engels 1983, 464)로 이해한다. 이러한 출발선 상에서 그녀는 먼저 민주주의를 모든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으로 보는 견해는 너무나 기계적이고 피상적인 생각이라고 비판하면서 자본주의 발전과 민주주의 사이에는 아무런 본질적 관계가 없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녀에 따르면, 정부의 정치적 형태는 내적, 외적 요소들의 종합으로 결정되며, 이러한 상황에 의거하여 절대왕정에서 민주공화제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녀 역시 사회주의로의 길을 위해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녀의 논의는 민주주의 형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내용에 관한 논의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좀 더 본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녀는 민주주의의 발전에 대해 “물론 정치생활의 민주주의 형태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사회에 대한 국가의 발전을 표현하며, 그런 한에서 사회주의 변혁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GW 1/1, 398).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진단하고 있다. “실로 의회제도 형식은 국가기구 안에 전 사회의 이해관계를 표현하는데 기여한다. 그러나 여기서 의회제도가 표현하는 것은 자본주의사회, 즉 자본가의 이해관계가 지배적인 사회를 표현한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그 형식에 있어서는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제도라 할지라도 그 내용을 볼 때 지배계급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도구가 된다”(GW 1/1, 399).

이러한 점에서 룩셈부르크는 “의회제도는 자본주의 사회 전체를 점진적으로 고취시키는 직접적인 사회주의 요소가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자본주의에 현존하는 적대관계를 심화시키는 부르주아계급국가

의 특수한 형태”에 불과하며, 베른슈타인의 자유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는 “부르주아 자유주의의 정신 속에서 단지 민주주의의 형식적 측면에만 몰두한 나머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간과”하고 있다고 논의한다(GW 1/1, 399). 그녀에게 의회주의는 부르주아의 계급지배와 봉건주의에 대한 항쟁의 특정한 역사적 형태일 뿐이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있어 의회주의는 사회주의로의 길을 위해 전혀 무의미한 것인가? 그것은 그렇지 않다. 그녀는 의회주의에서 행해지는 의회선거를 사회주의 선전과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 영향의 평가를 위한 하나의 기회로 생각하였고 의회는 대중을 의식화하고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강연장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녀는 베른슈타인의 주장처럼 사회민주당이 단지 의회주의적 방법을 통하여 자본주의국가의 권력을 장악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Frölich 저·최민영·정민 옮김, 2000).

그리하여 그녀는 맑스와 엥겔스의 생각처럼¹³⁾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이야말로 자본주의사회의 생산관계들을 청산하는 주요한 전제조건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다(GW 1/1, 400).

III. 대중파업론

1. 대중파업: 적절한 투쟁수단인가?

룩셈부르크에 있어 부르주아적 합법성과 발전과정에 있는 합법성으로서의 의회주의는 사실상 단지 부르주아의 정치적 폭력성을 대변하는 특정한 사회형식에 불과하다. 이러한 인식의 결과 그녀는 노동

13) 맑스와 엥겔스는 『공산당 선언』(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에서 이렇게 적고 있다. “공산주의자의 당면 목표는 ... 프롤레타리아트를 하나의 계급으로 만들고, 부르주아 지배를 타도하며, 프롤레타리아트가 정치권력을 장악하는데 있다”(Marx/Engels 1983, 474).

자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이라는 테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녀에게 있어 사회혁명은 단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발전의 문제이기도 하다. 의회 내의 일상투쟁을 통해 부르주아적 합법성을 수용할 경우, 일반적인 정치투쟁은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 그녀의 판단이다. 1906년 9월 그녀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러시아혁명을 토대로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Massenstreik, Partei und Gewerkschaften)이라는 글을 독일 사회민주당의 만하임 전당대회를 앞서 발간하였다.

이 글이 비록 러시아혁명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기는 하나 대중파업에 대한 룩셈부르크의 생각은 벨기에에서 일어난 노동자의 대중파업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하겠다. 1891년 5월과 1893년 4월에 벨기에 노동자들은 부르주아 사회의 전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위한 보통선거권을 위해 파업을 일으켰고, 그 결과 완전하지는 않지만 보통선거권을 획득하였다. 이 대중파업을 통해 룩셈부르크는 정치적 대중파업이 지니는 혁명적 성격에 주목하였고 동시에 대중파업을 노동자계급의 특별한 투쟁무기로 간주하였다(Cliff 저·조효래 옮김 2001, 67).¹⁴⁾

즉 그녀는 대중파업을 그 성격이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간에 노동자권력을 위한 혁명투쟁의 중심적 요소로 규정하였다. 룩셈부르크

14) 룩셈부르크는 이에 관한 두 편의 논문을 기고하였다. Rosa Luxemburg. “The Belgian Experiment”. in *Die Neue Zeit*. 1902년 4월 26일. 그리고 “Yet a Third Time on the Belgian Experiment”. in *Die Neue Zeit*. 1902년 5월 14일. 베른슈타인은 대중파업을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라는 관점에서 소극적으로 이해하였고, 독일사회민주당의 대부분의 간부들은 대중파업을 비생산적인 행동으로 여겼다. 힐퍼딩은 대중파업을 국가의 강제력에 대항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가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로 규정하기는 하였지만 가능한 시도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점에서 규제적이며, 방어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룩셈부르크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 카우츠키는 대중파업을 혁명적 상황에서만 적용될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였으나 혁명적 무기로서의 총파업에 대한 그의 입장은 혁명이 도래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속명론적 태도를 보였다. 1905년 예나 당대회에서 베벨은 대중파업을 보통선거권을 방어하는 데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로 카우츠키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사회민주당 간부들은 엥겔스의 글(Marx-Engels 1966)을 인용하면서 총파업을 전혀 의미없는 행위로 간주하거나 아니면 소극적 혹은 방어적 차원에서 이해하였다. 엥겔스는 『공작 중의 바쿠닌주의자들』(*The Bakuninists at Work*)이라는 글에서 총파업에 대한 무정부주의자들의 견해를 반박하였다.¹⁵⁾ 룩셈부르크는 총파업에 대한 생각이 엥겔스의 주장에 기초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나아가 엥겔스가 비판한 것은 총파업의 무의미함이 아니라 노동자계급의 일상적 정치투쟁을 통해 사회혁명을 달성하는 방법과는 대조적으로 사회혁명을 개시하는 수단으로서의 무정부주의자들의 총파업에 관한 것이었다고 그녀는 주장한다(Frölich 저·최민영·정민 옮김 2000, 181).

룩셈부르크에게 있어 대중파업은 노동자계급의 정치권력의 장악을 위한 주요한 행위였다. 대중파업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검토해 보자. 먼저 대중파업은 “노동자계급의 모든 위대한 혁명투쟁의 초기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우며 충격적인 투쟁형태”이며, “자본과 노동 사이의 대립이 더욱 발전하면 할수록 대중파업은 더욱 효과적이고 결정적인 것”이 된다(*GW* 2, 148). 그리고 대중파업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모든 국면, 혁명의 모든 단계와 요소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변화무쌍한 현상”이며, “그 운동법칙은 대중파업 자체나 대중파업의 기술적인 세부항목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의 정치적, 사회적 세력관계에 의해 좌우된다”(GW 2, 124).

“혁명투쟁의 형태”로서 대중파업은 “노동자투쟁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교하게 고안된 방법이 아니라 혁명적 시기에 있어서 노동자대중의 운동방식이며, 노동자투쟁의 현상형태이다”(GW 2, 125). 룩셈부

15) 바쿠닌주의자들은 총파업이 자본가계급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만들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노동자계급을 공격하기에 이르며, 그 반대급부로 노동자계급은 무장투쟁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엥겔스에 따르면 총파업을 위해서는 첫째, 노동자계급의 완전한 조직, 둘째, 많은 액수의 재정자금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Marx-Engels 1966, 160).

르크는 사회민주당이 대중파업을 단지 소극적 의미에서 방어적 무기로서만 간주하려 드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볼 때, 대중파업은 적극적인 의미에서 그리고 노동자계급성의 투쟁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혁명적 파업의 예비적 단계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대중파업과 관련하여 그녀는 사회개혁지향적 노선이 택하였던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경계짓기를 넘어서서 이 두 투쟁사이의 상호작용성에 관해 논의한다.“운동은 단지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방향으로도 움직”이며, “정치투쟁이 확산되어 명확해지고 강화됨에 따라 경제투쟁은 후퇴하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더욱 조직화되고 강화된다. 이 두 가지 투쟁 사이에는 완전한 상호작용이 존재한다”(GW 2, 128).

즉 “경제투쟁은 하나의 정치적 초점에서 다른 정치적 초점으로 나아가게 하는 장치”이며, “정치투쟁은 경제투쟁의 토양을 주기적으로 기름지게 한다”(GW 2, 128). 룩셈부르크에 관한 한 대중파업은 이 두 가지 투쟁의 “통일”의 산물인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이 두 가지 투쟁의 상호작용이 늘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혁명적 시기”에 한정되며, 이러한 시기에서만 노동과 자본의 부분적이고 사소한 갈등이 전면적인 폭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GW 2, 129).

그렇다면 혁명과 대중파업은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 룩셈부르크에 있어 혁명은 대중파업과 마찬가지로 특정한 정치적 상황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그 의미와 내용을 지니며, 그런 한에서 “계급투쟁의 외적 형태”이다(GW 2, 100). 그런 까닭에 혁명은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정치투쟁이 경제투쟁으로 급격히 변화할 수 있게 하는 사회적 조건을 창출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통일체인 대중파업 속에서 구체화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실에서는 대중파업이 혁명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이 대중파업을 산출한다”(GW 2, 130).

즉 대중과업을 위해서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작용 속에서 하나의 객관적 조건이 필요하며, 혁명이 곧 이 객관적 조건을 생산해 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조건이 창출되었다고 해서 혁명적 시기에 대중과업이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나는가? 그것은 결코 아니다. 대중과업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대중의 정치적인 자발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노동자계급이 억압과 착취를 당하면서 비인간화의 상태에 있다고 해서 지동적으로 대중과업이 일어나지는 않으며, 객관적인 물질 조건과 주관적 의지가 결합되어야 한다. 혁명은 대중과업을 위한 필요조건일 뿐이며, 충분조건은 아니다(GW 2, 131). 룩셈부르크는 의식적인 지도가 지니는 한계성을 간과하고 있고,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한다. 룩셈부르크에 있어 대중과업은 단지 노동자계급의 권리를 지키는 소극적 차원의 방어적 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적극적 의미를 부여받고 있는 혁명적 수단이다. 그러나 이 혁명적 수단도 의도적인 계획과 지도를 통해서만 발생할 수 없다. 그 당시의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룩셈부르크의 생각을 혁명적 낭만주의로, 그리고 노동조합에 대한 야만적인 증오심의 산물로 간주하고 격렬하게 비난하였다. 하지만 룩셈부르크가 볼 때,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간부들은 “시지프스의 노동”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이제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계기가 대중과업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등장한다.

2. 대중의 자발성: ‘대중’관념에 대한 오류인가?

룩셈부르크와 볼셰비키는 자발성과 당조직화의 문제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였다. 물론 이 첨예한 대립은 룩셈부르크와 독일사회민주당 사이에도 존재하였다. 이 글에서는 룩셈부르크와 레닌과의 논쟁은 다루지 않고 독일사회민주당과의 연관성 속에서 자발성 테제에 관한 논쟁을 다루기로 하겠다.¹⁶⁾ 그녀는 레닌, 카우츠키, 조레스가 지도력의 원칙 때문에 대중의 자발성을 과소평가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이론에 관한 소고 127

(Kołalowski 저·변상출 옮김 2007, 136).

그녀는 특히 『신시대』(Die Neue Zeit)에 기고한 「러시아 사회민주당의 조직화 문제」라는 글에서 레닌의 중앙집권주의를 일종의 ‘기회주의’ 혹은 ‘엘리트주의’로 규정하면서 혁명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하였다(GW 1/2, 422-444). 하지만 혁명적 운동들은 자의적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혁명적 운동들은 당 간부들의 결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룩셈부르크의 생각은 그녀가 신비주의와 자발성이라는 신화에 함몰되어 있다는 이유로 상당한 비난을 당하였다. 부연하면 룩셈부르크는 계급투쟁에서 당의 지도적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심지어 부정하고, 비인격적이고 객관적인 요소를 과대평가했으며, 이 결과 의식적이고 조직적인 행동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내지는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녀에 대한 이러한 비난은 프릴리히의 지적처럼 터무니없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Frölich 저·최민영·정민 옮김 2000, 193). 룩셈부르크의 자발성 테제는 의식적인 지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이 테제 속에는 의식적인 지도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다.“투쟁의 실마리와 방향을 제시하는 것, 투쟁의 모든 국면과 모든 순간에 이미 풀려나 움직이는 노동자계급의 모든 역량을 당의 투쟁대오 속에서 실현되도록 정치투쟁전술을 계획하는 것, 사회민주당의 전술이 단호함과 예리함에 바탕을 두고... 그 단호함과 예리함이 실제 세력관계의 수준 밑으로 내려가지 않으며, 오히려 그 세력관계에 앞서도록 하는 것 - 이것이 대중과업의 시기에 지도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GW 2, 133).

하지만 그녀가 문제삼은 것은 의식적인 지도가 지니는 한계성이었고, 이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단지 대중의 자발성에 있었다. 자발성 테제만을 놓고 볼 때, 그녀가 조직의 역할을 과소평가

16) 이 논쟁에 대해서는 GW 1/2, pp. 422-444 참조.

하고 자발성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이 일견 타당해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활동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보면 왜 그녀가 강력하게 대중의 자발성을 강조했는가에 대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는 사회민주당의 의회주의적·개량적 정치노선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였고, 이 지도부가 보이는 기회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그녀가 생각하기에 이 지도부는 조직의 역할을 과도하게 강조한 나머지 대중의 자발성은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고, 동시에 정치적 대중파업을 해야 할 상황, 시점 그리고 파업의 목적도 지도부가 일방적인 관료주의적 결정권을 쥐고 있었다. 파업의 목적 역시 선거권쟁취나 의회주의에 입각한 사회입법에 한정되었다. 룩셈부르크가 문제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던 것은 관료주의적 성향에 빠진 강력한 당 지도부와 ‘무기력하고 허약한’대중이라는 관념에 대해서였다. 그래서 그녀는 이렇게 반박하였다. “엄격하고 기계적이며 관료적인 관념 속에서 볼 때 투쟁이란 단지 조직역량이 어느 단계에 오른 조직의 산물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활기찬 변증법적 설명은 조직을 투쟁의 산물로 이해한다”(GW 2, 142). 이 인용문에서도 드러나는 것처럼 그녀는 조직과 대중운동의 상호지향적 관계를 잘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그녀는 “조직된 노동자들만으로 순수한 정치적 계급행동으로서 대중파업을 벌이려는 계획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만약 대중파업이 성공하고자 한다면, “진정한 인민대중의 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GW 2, 143). 달리 표현하면, “진정한 인민대중의 운동”은 대중의 자발성에 근거한 운동이며, “조직화된 핵심과 인민 대중 사이에 혈액순환이 있을 때만”이 대중운동이 그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녀는 자신의 글들에서 노동자계급의 대중운동에는 원칙을 가진 조직된 힘에 의한 지도가 필요하다는 점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 나아가 룩셈부르크의 대중관은 결코 신비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는 반혁명의 시기에 대중들이 나타내 보이는 기회주의적 성향에 대해서도 잘 감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당은 자발성없는 수동적 대중으로 남아 있는 노동자계급을 지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에게 계급의식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게 룩셈부르크의 기본적 입장이라 하겠다(Lukacs 1986).

이 문제는 대중의 자발성 테제에 기반한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의 상호관계 설정에서 룩셈부르크가 어떠한 입장을 피력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정당과 노동조합의 역할을 무시하고, 대중의 자발성을 과대평가했다는 비판의 적실성 여부가 드러날 것이다.

3. 대중파업,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 어떠한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가?

왜 룩셈부르크는 당과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을 과소평가하고 대중이라는 신비주의적 신화에 빠져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계기를 그토록 과대평가하였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는가? 이러한 비난에 대해 프란츠 메링(Franz Mehring)은 1907년 7월 『새 시대』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모든 후계자들 중에서 가장 훌륭한 이론가인 그녀에 대한 이 모든 조롱이 로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 생각한다”고 진술하고 있다.

분명히 그녀는 혁명 혹은 대중파업에서 소수의 전위에 의한 행동, 조직을 통한 계획과 지도보다는 대중의 자발성을 훨씬 더 강조하였다. 노동조합의 지도부는 룩셈부르크의 생각을 혁명적 낭만주의와 노동조합에 대한 야만적인 증오심의 산물로 폄하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그녀에게 쏟아진 이러한 비난에 대해 적합성을 지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행해지고 있었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녀는 당과 노동조합의 지도부에 대해 상당히 노골적으로 실망감

을 표출하곤 하였다. 그녀가 보기에 이 지도부는 정치적 순응주의 혹은 사회개혁적 정치노선에 입각하여 적극적인 정치적 변혁의지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사회민주당은 가장 계몽되고 가장 계급의식이 투철한 프롤레타리아의 전위이다. 당은 팔짱을 낀 채 숙명적으로 혁명적 상황의 도래를 기다릴 수 없고 기다려서도 안 되며, 대중의 자발적 운동이 하늘로부터 떨어지기를 기다려서도 안 된다”(GW 2, 146).

이러한 맥락에서 대중과업의 시기에 당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투쟁에 올바른 슬로건을 제시하고 방향을 부여하는 것, 정치투쟁의 모든 순간에 프롤레타리아의 폭발적인 힘이 당의 전투성과 결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으며, 나아가 사회민주당의 전술은 “대중들에게 안정감, 자신감 그리고 전투정신”을 부여하는 것에 그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GW 2, 133-4). 그녀의 자발성테제가 주목하고 있는 점은 대중과업이 일반적으로 당과 노동조합의 의식적인 계획을 통해서만 그리고 조직화된 소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대중의 자발성과 결합될 때, 다시 말해 대중의 자발성이 토대가 될 때 비로소 대중과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룩셈부르크의 입장을 달리 표현하면, 노동자 대중이 사회주의라는 목표를 의식적으로 가지는 것이야말로 사회주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노동자 대중은 사회주의적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자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한 자신들을 원칙을 가진 조직적인 힘에 의한 지도, 즉 노동자 대중을 지도할 혁명 정당이 필요하다(GW 3, 37-42). 그녀는 대중운동이나 대중조직과는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단지 자신의 명령에 의해서만 운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회민주당 및 노동조합 간부들의 종파적 생각과 관료주의적 행동에 강하게 이의를 제기하였다고 하겠다. 그런 연유로 그녀는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계기를 강조했다던 나머지 당과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그녀의 생각이 과도하게 느껴졌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가 작성한 글들을 통해서 볼 때, 그녀에게서 관련이 되었던 것은 자발성과 지도의 상호작용성, 변증법적 상호지양

성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은 일상적인 경제투쟁과 의회투쟁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점,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을 분리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대중과업을 의회주의적 투쟁을 통한 보통선거권의 방어라는 방어적 의미에서 이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항상 서로의 결속력을 다지고 있었다. 룩셈부르크가 보기에 이들의 활동은 결국 ‘시지프스의 노동’에 불과할 따름이었다. 그녀는 먼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이원론적 투쟁방식을 “의회주의시기의 인위적 산물”로 규정하면서 이 분리를 거부하고 있다. “...부르주아사회의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과정에서 경제투쟁은 각각의 기업에서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개별투쟁으로 나뉘고 각각의 산업부문에서 분산된 투쟁으로 벌어진다. 다른 한편, 정치투쟁을 대중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주아국가의 형식에 따라 대의적인 방식으로 법적 대의기구가 벌인다”(GW 2, 155).

하지만 혁명적 투쟁의 시기가 시작될 경우,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은 하나”가 되며, 더욱이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인위적인 경계는 간단히 사라진다”(GW 2, 155). 그녀에 따르면, 노동자계급의 투쟁에서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은 두 개의 서로 다른 계급투쟁이 아니다. 이 투쟁들은 ... 단지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한 투쟁의 두 가지 국면, 혹은 두 가지 단계를 구성할 뿐이다(GW 2, 155).

그렇다면, 노동조합투쟁과 사회민주당의 투쟁 사이에는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하는가? 그 차이는 노동조합투쟁이 노동운동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반면, 사회민주당의 투쟁은 노동자계급의 미래의 이해관계를 포함한다는 데 있다. 달리 표현하면, 노동조합이 단지 노동운동발전의 한 단계만을 대변하고 있다고 한다면, 사회민주당은 노동자계급과 그 해방이라는 이해관계를 대변한다는 점이다(GW 2, 155-6). 이러한 의미에서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의 관계는 조직 및 기능의 관점에서 ‘동등한 권위’의 관계가 아니라 “전체와 부분의 관계”이며, 노동조합은 사회민주주의 운동과 사회민주주의 선동의 직접적

인 산물이다(GW 2, 156-8).

노동조합투쟁이 경제적인 개혁을 하려는 노력과 같이 의회주의 투쟁은 그 성격상 정치적 개혁을 하려는 시도이다. 노동조합투쟁과 의회주의 투쟁은 현제를 위한 경제적·정치적 시도이다. 물론 의회주의 투쟁은 전체 노동자계급투쟁의 한 단계이며, 전체 노동자계급의 목표는 노동조합투쟁이나 의회주의 투쟁을 모두 초월하는 것이다(GW 2, 156). 그리하여 룩셈부르크는 부르주아 사회에서 사회민주당의 역할을 야당으로 정의하면서 노동자계급의 정치투쟁을 의회투쟁으로 한정시키는 점, 사회민주당을 혁명적 노동자 정당에서 소부르주아적 개혁정당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점 등은 다른 아닌 기회주의적 정치노선을 반영하고 있다고 논박한다(GW 2, 156-7).

정치권력의 장악과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이념에 모든 관심을 집중시킨 룩셈부르크의 입장에서 볼 때, 의회주의와 사회입법에 매진하였던 사회민주당과 노동조합의 정치행동들은 당연히 기회주의적이고 정치순응주의적인 행동으로 간주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들에 대항하여 그녀는 노동조합과 사회민주당은 편협한 관료주의적 관념을 탈피하고 대중 속에 그 토대를 두어야 하며, 노동운동은 광범위한 대중 속에 정신적 통일, 즉 삼위일체를 형성해야 한다고 결론내린다(GW 2, 162).

IV. 결론

베른슈타인은 세계의 변화가 혁명이 아니라 개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회사적 단계론을 대변하고 있다. 오늘날의 의미에서 볼 때, 그가 주장한 국가이념은 사회동반자 개념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Dath 2010, 19-20). 비록 그가 사회주의 건설을 포기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할지라도 사실상 그는 사회주의 건설을 포기하고 사회민주주의적 공화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하겠다.

룩셈부르크는 개혁지향적 정치노선에 대해 일방적인 부정을 하지는 않았다. 어떠한 개혁이 혁명을 위해 필요한 전제조건을 형성할 경우, 그녀는 이 개혁을 수용하였다. 앞서 논의하였듯이 개혁과 혁명은 서로 간에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변증법적 산물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생각하기에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는 사회주의로의 길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었고, 그것의 지향점은 의회주의에 입각한 공화정에 불과하였다. 베른슈타인이 주장하고 있는 자본주의의 적응이론에서 등장하고 있는 신용제도, 카르텔 및 트러스트 등은 결코 적응수단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위기를 심화시키는 요소였다.

또한 경제적 민주주의나 정치적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베른슈타인에 대해 룩셈부르크는 이 민주주의들이 의회주의라는 제도적 개혁 내에서 일어나는 한, 자본과 노동의 임금관계를 철폐할 수 없다고 논의한다. 이에 덧붙여 그녀는 경제투쟁과 정치투쟁의 경계짓기를 거부하면서 이 두 투쟁 간의 상호작용을 주장한다. 이러한 점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우리는 결코 형식적 민주주의의 우상숭배자인 적이 결코 없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우리는 끊임없이 부르주아민주주의의 정치형태를 사회적 본질과 구별해 왔다는 점이다. 즉 우리는 끊임없이 형식적 평등과 자유라는 달콤한 외피 뒤에 숨겨진 자유의 부재와 사회적 불평등의 굳건한 본질을 규명해 왔다. ... 또한 정치권력을 장악함으로써 민주주의 전부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이다”(GW 4, 363).

그녀에게 있어 ‘새로운 내용’의 창출은 다른 아닌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로 대체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 창출의 방법론으로써 그녀는 노동자계급에 의한 정치권력의 장악을 주장하였다. 나아가 그녀는 대중파업을 하나의 혁명적 무기로 간주하고 무엇보다도 사회주의로의 길로 나아감에 있어 이 대중파업이 지니는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대중파업은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의도적인 지도나 계획이 아니라 대중의 자발성이라는 계기를 통해 일어나며, 또한 이 자발성과 정당, 그리고 노동조합이 삼위일체가 될 때, 비로소 그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이다. 그녀가 주장한 대중의 자발성이 물론 대중에 대한 과도한 신뢰의 표현 내지 오류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정당과 노동조합이 주도면밀한 계획과 지도를 한다 할지라도 대중의 자발성이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그 혁명은 성공할 수 없다는 게 그녀가 지니고 있었던 확신이었다.

맑스와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 역시 자본논리적 사회에서 하나의 진정한 독립적 행위주체로서 생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녀에게 있어 혁명은 단지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이 중심이 되는 사회, 즉 인간사회를 건설함에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지 않았던가! “내 이상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질서이다. 이를 추구하고 이 이상의 이름으로 나는 언젠가 증오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Seidemann 1998, 9).

< 참고문헌 >

- 풀무질 편집부 옮김, 2002, 『룩셈부르크주의』, 서울: 풀무질.
- Berstein, Eduard, 1899, *Die Voraussetzungen des Sozialismus und die Aufgaben der Sozialdemokratie*, 강신준 옮김, 1999, 『사회주의의 전제와 사민당의 과제』, 서울: 한길사.
- Cliff, Tony, 1959, *Rosa Luxemburg*, 조효래 옮김, 2001, 『로자 룩셈부르크』, 서울: 북막스.
- Dath, Dietmar, 2010, *Rosa Luxemburg*. Berlin: Suhrkamp Verlag.
- Frölich, Paul, 1967, *Rosa Luxemburg. Gedanke und Tat*. 최민영·정민 옮김, 2000, 『로자 룩셈부르크. 생애와 사상』, 서울: 책갈피.
- Gallo, Max, 1993, *Rosa Luxemburg*. übersetzt von Rainer Pfeleiderer und Birgit Kaiser, Zurich: Benziger Verlag.
- Gietinger, Klaus, 2009, *Eine Leiche im Landwehrkanal. Die Ermordung Rosa Luxemburgs*, Hamburg: Edition Nautilus Verlag.
- Kolakowski, Leszek, 1976, *Main Currents of Marxism*, 변상출 옮김, 2007, 『마르크스주의의 주요흐름』, 서울: 유로.
- Kramer, Dieter, 1971, *Reform und Revolution bei Marx und Engels*, Köln: Pahl_Rugenstein.
- Laschitzka, Annelies, 2000, *Rosa Luxemburg. Im Lebensrausch, trotz alledem*, Berlin: Aufbau Verlag.
- Lukacs, Georg, 1986, *Geschichte und Klassenbewusstsein*, Darmstadt und Neuwied: Hermann Luchterhand Verlag.
- Luxemburg, Rosa, 1974, *Sozialreform oder Revolution?*, in. *Gesammelte Werke*, Bd. 1/1, Berlin: Dietz Verlag.
- _____, 2000, *Organisationsfragen der russischen Sozialdemokratie*, in. *Gesammelte Werke*, Bd. 1/2, Berlin: Dietz Verlag.

- _____, 1974, *Massenstreik, Partei und Gewerkschaften*, in. *Gesammelte Werke*, Bd. 2, Berlin: Dietz Verlag.
- _____, 1973, *Wieder Masse auf Führer*, in. *Gesammelte Werke*, Bd. 3, Berlin: Dietz Verlag.
- Marx, Karl/Engels, Friedrich, 1883,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1848)*, Berlin: Dietz Verlag.
- Marx-Engels, Studienausgabe III. 1966, Frankfurt: Fischer Taschenbuch Verlag.
- Nettl, Peter, 1969, *Rosa Luxemburg*, Köln/Berlin: Kiepenheuer & Witsch.
- Schütrumpf, Jörn(Hrsg.), 2006, *Rosa Luxemburg oder: Der Preis der Freiheit*, Berlin: Karl Dietz Verlag.
- Seidemann, Maria, 1998, *Rosa Luxemburg und Leo Jogiches. Die Liebe in den Zeiten der Revolution*, Berlin: Rowohlt.
- Tudor, Henry(ed. and trans.), 1993, *The Preconditions of Socialism*.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The Essay of Rosa Luxemburg's Political Theory

(Joe, Hyeon-soo)
(Kookmin University)

Abstract

Bernstein argued the road to socialism through the social reformist political line from the fabianist and evolutionist point of view. At that time the SPD is in fact dominated by this reformist line. He denied the possibility of the necessary collapse of capitalism, inasmuch as he argu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s adaptation-means of capitalism based on the empirical material. On the contrary, Rosa Luxemburg debated the limitations which the road to socialism through the social reform carried, and then insisted the accomplishment of socialism through the revolution from the viewpoint of the dialectical sublation between reform and revolution. The so-called 'revisionist debate' can be by definition understood as the methodological disparity in the building of socialist state. This article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 of Luxemburg's political theory from the viewpoint of 'reform', 'revolution', 'the seizure of political power' and 'strike'.

Keywords : reform, revolution, economic democracy, political democracy, political power, strike, spontaneity